

News

한은 금통위, 금리동결 유력...증권사 회사채 담보대출 허용하나

뉴스1

한은 금통화위원회가 9일 오전 4월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연 0.75%로 동결할 것으로 전망... 최대 관심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회사채시장 신용경색을 풀기 위해 증권사에 대한 회사채 담보 대출을 허용 여부

코로나 위기에 기업·자영업·가계대출 '역대급 증가'

연합뉴스

3월 말 은행권 기업대출 잔액은 901조4천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18조7천억원 늘어나며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9년 6월 이후 가장 큰 폭 증가 은행권 대기업 10.7조 ↑, 개인사업자 포함 중기 8조 ↑, 가계 9.6조 ↑..."대기업은 유동성 확보에, 중기는 정부·은행 금융지원도 영향"

코로나로 연체위기 빠진 대출자에 최대 1년 원금상환 유예

매일경제

금융회사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연체 위기에 빠진 개인과 자영업 대출자에게 최대 1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적용 대상 대출은 신용대출과 정책서민금융대출 연체가 실제 발생하기 직전인 사람, 연체 등록 후 90일이 되기 이전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개인뿐 아니라 자영업자도 지원...

시중은행 초저금리 대출 거절 못한다

연합인포맥스

그간 은행은 나이스신용정보 등 신용평가가 제공하는 등급에 은행의 내부 정보를 결합한 자체 신용등급(CSS)을 산출해 적용... 이를 두고 초저금리 대출을 위해 시중은행 찾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불만 커지자 은행들 나이스평가정보 1~3등급에게도 이차보전 대출을 일제히 공급하기로

'고금리' 보험약관대출까지 받아 주식 투자

뉴시스

주요 생보사(삼성·한화·교보)의 지난 3월 보험약관대출 발생은 총 2조127억원으로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되기 이전인 1월 1조4809억원 대비 약 36% 증가 주요 손보사(삼성·현대·DB·KB·메리츠)들의 지난 3월말 보험약관대출 잔고액을 보면 13조269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조2629억원 대비 8% 증가

보험사기 적발 8809억 역대최고..60대 이상 증가세

서울경제

2019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809억원, 적발인원은 9만2538명으로 모두 역대 최고...이는 매일 평균 254명, 24억원의 보험사기가 적발된 꼴 손해보험 이용한 보험사기 91.1%, 생명보험 8.9%...상해·질병 또는 자동차사고 등의 피해를 과장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보험금 청구하는 생계형 보험사기 증가

무디스, 국내 6개 증권사 신용등급 하향조정 검토

연합뉴스

KB증권(A3), 한국투자증권(Baa2), 미래에셋대우(Baa2), NH투자증권(Baa1), 삼성증권(Baa2), 신한금융투자(A3) 등 국내 6개 증권사 신용등급 하향 조정 검토 되 "자산 가격의 급격한 조정으로 수익성과 이익이 상당히 약해질 것...한국 증권사들은 상당한 규모의 채권과 주식을 보유...이는 자산평가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자금확보 여파로 3월 CP 발행 34% 급증

연합뉴스

지난달 국내 기업들의 CP 발행금액은 21조2천472억원으로 전월(15조8천375억원)보다 34.16% 증가...업종별로는 증권사들의 발행금액이 크게 늘어 신금투 발행금액 1조3천억원...국내 기업 가운데 가장 많아...한국투자증권(1조100억원), 미래에셋대우(1조원), 하나금융투자(6천500억원), 삼성증권(3천700억원)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